

사회전기로 본 이성형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이남섭*

단독/한일장신대학교

Lee, Nam-Sup (2013) "A Social Biography and Reflections on the Latin American Studies of Sung-Hyong Rhee"

ABSTRACT

This article provides a brief sketch on the life and the ideas of Sung-Hyong Rhee from the social biographical perspective. I have analyzed the development of his ideas, divided into four periods. During his scholarly life of 20 years, he produced numerous books and articles on Latin American Studies. With regard to his major activities and ideas, I have summarized the key directions of his work:

- 1]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history of Latin American "Social Formation Debate" and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area studies of Latin America.
- 2] The critical study of 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
- 3] The expansion of methodology and scale of Area Studies.
- 4] The contribution of his research to the public and the needs of practical approach for the social interests.

Considering his achievements, Rhee should be known as the most accomplished area study specialist, also well known for his desire to understand Latin American reality from a Third World perspective without the prejudices of First World scholarship.

Key Words: Sung-Hyong Rhee, social biography approach, latin american studies, area studies specialist, Korea / 이성형, 사회전기, 라틴아메리카연구, 지역연구전문가, 한국

시작하는 말 - 사회전기로 이해하기

지난해 8월 이성형 교수(1959-2012)가 53세의 이른 나이로 작고하였다.

* Nam-Sup Lee is professor of humanity and social science studies at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Korea (Email: lns@hanil.ac.kr).

그는 라틴아메리카지역연구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는 불모지나 다름 없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영역을 개척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22년이라는 짧은 연구자(1990-2012)의 삶을 통해 10여권의 단독 저작과 수십 편의 논문을 남겼다.¹ 그는 사회과학적 주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그의 폭넓은 사상과 삶의 궤적을 그 자신의 글에 근거하여 스케치 형식으로 이해하려는 작은 시도이다.² 그의 저작과 삶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비판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한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출판한 책에 나타난 사상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출판한 책과 삶의 현실을 통합하면서 이해하는 사회전기사적 접근 방법이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두 번째 방법을 취하려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사상은 저자가 직면한 현실과의 대응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속한 나라의 현실적 요구가 연구대상 국가의 상황 분석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성형은 1959년 부산에서 4남3녀 가운데 여섯째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인문계 대신 부산상고로 진학하였다. 성적이 뛰어나 한국은행에 취직하였다. 그러나 1년 후 은행을 그만두고 부산대 회계학과에 특차로 입학하였다. 부산대를 졸업한 뒤 그는 경제적 미래가 보장되는 취업대신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하였다. 박사과정에 입학한 뒤 그는 사회구성체 논쟁연구에 뛰어들면서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 군부독재에 대한 사례연구를 접하게 된다. 이성형의 라틴아메리카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하였다. 이후 그의 라틴아메리카 연구사는 크게 다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³

1단계(1990-1997)는 박사학위 논문연구 전후의 시절로 사회구성체로 시작한 라틴아메리카연구 시기이다. 이 시기는 1987년 민주화항쟁이후의 시기로서 정치적으로 군부독재에서 민간정부로 이행되던 시기였다. 동시에 김영삼 민간

1 이외에도 역서를 많이 출판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2 현재까지 이성형의 저작에 대한 소개는 단편적으로 있었으나 그의 사상과 삶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은 없다. 그의 삶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지난해 그의 갑작스러운 부음 소식 이후 한겨레에 실린 서성철의 글(2012)과 한겨레21 특집호(924호)를 참고할 수 있다.

3 여기서 단계 구분은 연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는 겹치는 시기도 있다. 가령 2단계는 이미 1단계 후반부에 진행되고 있었고, 3단계는 4단계에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계화정책으로 지역연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서울대의 지역종합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지역학연구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단계(1997-2004)는 서울대의 지역종합연구소 생활을 마감하고 세종연구소로 옮겨 신자유주의 시대의 라틴아메리카연구에 몰두했던 시기이다. 이 단계는 김대중 정부의 시절로서 그의 연구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였다. 3단계(2004-2009)는 라틴아메리카연구를 사회과학분야에서 문학과 음악 그리고 미술의 영역까지 연구의 지평을 넓혔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노무현 정부의 시절로써 이화여대 정치학과에서 교수로서 재직하던 시절이었다. 마지막 4단계(2009-2012)는 서울대로 돌아와서 지금까지의 지역학연구를 통합 정리하던 시기이다. 이 단계는 이명박 정부시기로써 인문학습원의 중남미학고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대중화와 자유로운 연구 활동에 매진했던 시기였다.

이 4단계의 시기를 통해 그가 해결하고자 고민한 라틴아메리카연구의 주요 주제는 무엇일까? 필자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라틴아메리카 지성사의 비판적 분석과 지역학 연구 인프라의 구축이고, 둘째는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연구이고, 셋째는 라틴아메리카 연구 지평의 확대와 독창적 연구방법론의 모색이고, 마지막 넷째는 연구결과의 대중화와 지역학 연구의 실용적 접근이었다.

사회구성체로 시작한 라틴아메리카 연구

이성형이 발표한 첫 번째 책은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1990)이다. 이 책은 1989년에 통과한 박사학위논문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이 시기는 이성형의 청년시기로써 박사학위논문 작성 시기에 해당한다. 이 책은 60년대-80년대 라틴아메리카 지식인의 논쟁사를 정리한 것으로써 국내 학계에서는 최초의 시도였다.

당시 국내의 정치상황과 연구경향은 그의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자세히 반영되었다. 국내의 학계에서는 사회구성체 논쟁이 매우 활발한 시기였다. 필자가 그를 만난 시점도 이 시기이다. 당시 필자는 멕시코에 유학중이었고 그는 학위논문 현지조사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였다.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 것은 날카로운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혈기왕성한 젊은 학자가 멕시코의 변화가에서 구걸하던 가난한 멕시코 원주민 어린이들에게 동전을 주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다. 매일 아침마다 동전을 한보따리 바꾸어가지고 필자의 숙소를 나가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그의 사회과학적 사상에는 이러한 따뜻한 인간적 감수성이 배어 있었다. 그의 이러한 감수성은 20년 후 2010년 1월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나타났다. 많은 지역전문가들이 아이티의 지진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그는 학회차원에서 모금 활동이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학회가 모금운동을 하여 기부금을 아이티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는 담론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연대를 실천하려 하였다.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진보적 담론을 생산하면서 가까운 가난한 이웃에게는 지극히 냉정한 전문가들과는 다른 길을 그는 처음부터 걷고 있었다.

이 첫 번째 책에서 이성형은 라틴아메리카 지성사를 비판적으로 분석 연구하였다. 쿠바혁명이후의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구성체 논쟁을 종속자본주의 논쟁과 칠레사회변혁 논쟁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정통좌파의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론, 파시즘논쟁, 종속자본주의 논쟁, 멕시코의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 소련학계의 자본주의 논쟁을 매우 심도 있게 다루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성형의 분석은 사실상 라틴아메리카 자체에서는 이미 의미를 잃은 주제였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라틴아메리카는 민주화로 인해 포스트모더니즘 논의가 종속이론을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급격한 정치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급진적 변혁이론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라틴아메리카사회로부터 벤치마킹할 필요를 느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성형의 연구결과가 한국사회의 사회구성체 논쟁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고 한국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필자가 기억하기에는 당시 국내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성체 논쟁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하나는 급진적 사회변혁 운동이론에 의한 폐기 내지 무시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운동의 중도개혁이론에 의한 폐기 내지 무시하는 입장이었다. 소련을 필두로 한 구 공산권 세계의 몰락은 국내에서의 사회구성체논쟁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내의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이성형은 국내의 지역학연구의 기초를 수립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시작하였다. 하나는 라틴아메리카학회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대의 지역종합연구소 일이었다. 이 시기에 그는 새로 조직된 라틴아메리카학회가 자리 잡는 일에 매우 헌신적이었다. 그 당시 라틴아메리카학회 활동은 다른 지역학회와 마찬가지로 몇몇 대학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학회의 연구지평과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 노력하였다. 전국의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 당시 국내외에서 방금 학위를 마친 신진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었다. 연구주제도 기존의 어문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주제를 설정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학회가 전문적인 학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그 결실은 1998년 라틴아메리카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편집해서 출판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Rhee 1999b)이었다.

아마도 이 시기 이성형이 가장 열정적으로 몰두한 일은 서울대학교 내에 설립된 지역종합연구소가 체계를 갖추는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일이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출범한 김영삼 문민정부(1992-1997)는 세계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 기관으로 서울대학교의 지역종합연구소를 선정하였다. 이성형은 이 지역종합연구소가 뿌리내리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 결과 이 당시 지역종합연구소의 지역학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소장학자들이 오늘 국내 지역학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자 군을 이룬다(Lee and Kwon 1998, 633-657). 필자도 이 지역학 연구프로젝트의 수혜자였다. 이 시기에 이성형은 개인적 연구보다도 지역학 연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정적 업무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종합연구소는 그가 애쓴 보람도 없이 여러 번의 내부 변화를 거친 후 사라지고 “시멘트 건물”만 남고 말았다(Rhee 2001, 4; 2002, 306). 그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종합연구소가 본래의 설립정신을 상실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라틴아메리카지역학 분야의 HK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국가발전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국내 지역학연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담론생산보다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이었다. 이성형은 한국의 지역학연구를 위한 기반구축과정에서 참으로 귀중한 역할을 하였다. 어쩌면 그는 이 일에 매진하다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모르겠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라틴아메리카 연구

이 두 번째 단계는 이성형의 연구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시기로서 이성형도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연구에 몰두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그가 서울대학교를 떠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세종연구소가 그에게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제공하였다. 이 시기 동안에 그는 그의 주요 저작에 해당하는 『IMF시대의 멕시코』(1998),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1999a),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학』(2002),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2009b)을 연속적으로 발간하였다. 첫 번째 세권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을 매우 정교하게 분석하였다. 이와 달리 마지막 네 번째 책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2009b)은 이전 저술 방식과 달리 저술 대부분을 신자유주의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과 평가를 포함하였다. 국가 전반에 대한 분석도 담았지만, 전력산업, 가스 산업, 노동정책, 반부패 정책 등과 같은 사례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 공과를 분석하였다.

1992년 2월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면서 이성형의 신자유주의 연구는 시작되었다(Rhee 1999a).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지역전문가의 삶을 통해 그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분석한 주제는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였다. 왜 그는 신자유주의 분석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 그에게 있어서 신자유주의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는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그의 신자유주의 분석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었는가? 어쩌든 신자유주의 분석을 계기로 그는 이전의 급진담론 위주의 연구 활동의 경계를 벗어나 라틴아메리카 지역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굳히기 시작하였다.

이성형이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한국의 상황이 라틴아메리카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던 사건은 1982년의 외채위기였다. 한국은 15년 후인 1997년에 외채위기가 왔다. 1997년 한국은 IMF사태를 맞아 오랫동안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진보적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더 강화되었다. 이때 이성형은 『IMF시대의 멕시코』(1998)와 『신자유주

의 빛과 그림자』(1999a)를 출간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IMF시대의 멕시코』에서 분명하게 표명하였고, 이 입장은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로 이어졌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험을 한미 FTA의 찬반논리로 아전인수 격으로 몰아붙이는 과도하게 정치적인 태도를 몹시 불편해 했다. 그 이유는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경험에는 비교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Rhee 2009b, 10).

이성형에 의하면 “브라질과 멕시코 모두 신자유주의 개혁을 실행했지만, 멕시코의 경험이 훨씬 과격했다. 브라질의 경우는 발전주의 전통이 강력하므로, 국내 산업을 일정하게 보호하는 역내 통합운동이 개방과 개혁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Rhee 2009b, 10). 이성형은 “브라질의 임기응변식 실용주의가 훨씬 경제적으로 폐해가 작았다. 반면 NAFTA를 통해 미국경제에 통합되는 길을 택한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회복되는 속도도 브라질보다 훨씬 더디다”(Rhee 2009b, 10)고 평가하였다.

신자유주의 민영화의 실패 사례로 이성형은 칠레전력산업의 민영화와 남미 천연가스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칠레 전력산업의 민영화의 득과 실을 분석하면서 그는 독과점에 따른 요금 상승, 발전사의 담합, 공급 불안정과 잦은 단전, 외국기업의 지배 등을 주요한 폐해로 지적하였다(Rhee 2009b, 11, 257-258).

남미 천연가스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을 살펴보면 이성형은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90년대 남미의 에너지 국영기업들은 저투자, 저생산성, 재정 압박으로 민영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었다. 민영화 이후 탐사와 시추가 증가하고 보유 매장량과 시장 생산량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천연가스전과 배급망을 보유하게 된 내외 민간 기업들은 나름대로 시장력을 이용하여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전략적 행동을 하지만, 국제기구는 속수무책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에너지 부문의 규제기구는 대부분 민간 기업들에 의해 포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기업, 소비자는 서로 믿지 않고 불만만 쌓여 간다”(Rhee 2009b, 11-12).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영화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성형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비교분석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민영화 과정과 그 귀결을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두 사례는 소유구조와 민간참여에 대한 개방성에서 대조적이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상류와 하류를 분할하고

이를 모두 민간부문에 넘겼다. 반면 브라질에서는 공기업이 지배적인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탐사, 공급, 판매 부분만 민간에게 개방했다. 하지만 망산업의 특성상 수직적 통합이 효율적인 동시에 수익성도 높았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시간이 흐르자, 수직적 통합의 경향을 보였다”(Rhee 2009b, 12).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를 분석하기 위해 그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사례를 선택하였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현지를 부지런히 방문하면서 1차 자료를 발굴하여 자신의 논지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는 실패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칠레의 연금민영화 개혁사례이다. 처음에 칠레의 연금민영화 계획은 열렬한 숭배자 그룹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칠레를 포함하여 연금민영화 계획을 받아들인 국가들을 보면 모두 올상이다. 연금 생활자의 미래는 주식시장의 폭락과 더불어 사라졌다. 연금의 특성인 안정적 소득의 확보가 너무 불안정해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연금이 아닌 것”(Rhee 2009b, 6)이라고 선언한다.

이성형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실패가 곧 바로 선거정치에 반영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사람들은 시장개혁과 민영화가 가져온 후유증에 넋더리를 낸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고용 불안정이 만성적인 현상이 되었다. 최빈곤층에 정부 재원이 집중되어 빈민층을 줄이는 프로젝트는 계속되지만 중간층의 복지나 소득수준은 하락하였다.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점습효과(trickle-down effect)는 일어나지 않았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공식부문은 계속 늘어만 갔다. 이런 연유로 선거정치의 추는 바로 중도좌파 정당들로 쏠리게 되었고 어떤 국가에서는 좌파정부가 연임에 성공하였다. 이 결과 200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는 중도좌파정부들로 넘쳐났다”(Rhee 2009b, 6).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 이성형은 그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지난 20년간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남긴 사회적 위기 상황이다. 개혁과 개방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빵과 일자리를 가져 주지 못했다. ‘눈물의 계곡’을 그렇게 오랫동안 견뎌온 여전히 실업자는 넘쳐나고, 고용의 불안정은 심화되었으며 사회치안도 말이 아니다. 정치적 부패는 여전하다. 선거에서 좌파들이 연전연승을 거두는 까닭은 대중들의 사회적, 정치적 불만이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Rhee 2009b, 7).

둘째 좌파의 승리는 다양한 세력을 결집시킨 실용주의적 중도파 지향의

반영이다. “중남미 좌파의 대다수는 지난 20년간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세계화의 대세를 수용하며 중도파로 이동하였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강력하게 부상한 신사회운동의 동력이 결합하여 선거 승리란 결과를 창출한 것”(Rhee 2009b, 7-8)이라고 분석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성형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정부의 붕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Rhee 2009b, 8)으로 전망하였다. 중도좌파 붕 현상은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속력의 강화도 브라질과 같은 역내 리더가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성형은 “분명히 신자유주의의 전성기는 지났지만 그렇다고 동트는 새벽이 온 것은 아니다”(Rhee 2009b, 9)라고 단언한다.

이성형은 1990년대 10년간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사례분석을 통해 세계화시대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그는 세계화시대의 갈 길은 신자유주의에만 있지 않고 다른 길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다를 수 있음을 명백히 구분하였다(Rhee 1999a, 24).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라틴아메리카가 당시 실험하고 있던 대안적 길의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쿠바, 베네수엘라, 남미국가연합의 사례가 그것이다(Rhee 2009b).

이성형은 쿠바문제를 ‘카스트로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제도와 정치세력의 힘 관계를 중심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카스트로 이후의 쿠바는 여전히 견고하다. 만약 향후 이행이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 지배자인 군부와 마이애미의 쿠바계 미국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수준에서 실행될 것이다”(Rhee 2009b, 165-166)고 전망하였다. 쿠바의 대외관계도 미국내부의 분열,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중남미 무대 등장 등으로 의외의 호조건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힘이 다소 약화되고, 라틴아메리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쿠바의 입지도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성형은 “이런 환경변화가 오히려 쿠바의 시장개혁을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Rhee 2009b, 13)고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쿠바의 경제개혁실험은 생존전략차원에서 시작되었음을 지적한다. 시장개혁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면 다시 재 집중화되는 성공의 역설이 등장한다. 따라서 쿠바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점친다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무망한 노릇”(Rhee 2009b, 10)이라고 평가한다.

이성형은 베네수엘라의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관찰을 하였다. 그에 의하면 “차베스현상에 대한 분석이 대단히 정치화되어 있다”(Rhee 2009b, 14)고 지적하였다. 지지자들은 새로운 실험으로서 차베스주의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한다면 비판자들은 포퓰리스트, 어릿광대, 몽상가로 폄하한다. 이성형은 “베네수엘라의 역사적 전망 속에서 차베스주의를 바라 볼 것을 주문한다. 21세기 사회주의와 같은 거대담론이나 하나의 모델보다는 과거사가 남긴 후유증에서 시작된 현상으로, 그것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Rhee 2009b, 14).

이성형은 2008년에 출범한 남미국가연합(Unasur)을 주목하고 이 기구의 역사적 의의를 분석하였다(Rhee 2009b, 422-435). 그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이 주도하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는 사장되고, 대신 라틴아메리카 내부의 통합운동이 강화되었다”(Rhee 2009b, 13)고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남미국가연합은 메르코수르(Mercosur)의 보완 물로, 역내 문제는 역내 역량으로 해결하자는 일종의 남미판 ‘면로독트린’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에 반하여 역내의 통합력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령 브라질은 지도력의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 하고 미국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유럽연합 수준의 통합을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미 가스관, 도로망 연결과 같은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Rhee 2009b, 13). 이성형은 남미국가연합을 2000년대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고성장의 불을 겪은 남미국가들의 자신감이 반영된 노력(Rhee 2009b, 13)과 실용주의 정치의 결과(Rhee 2009b, 426-427)로 보았다. 현재 라틴아메리카는 이 세 가지 대안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이성형은 이 대안적 길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예리하게 분석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연구의 지평확대와 연구방법론의 모색

이 세 번째 단계는 이성형에게는 아주 짧았지만 가장 안정적인 시기이면서 비운을 겪은 시기이기도 하였다. 안정적인 시기는 이화여대 정치학과에 재직했던 시기였다. 동시에 이 시기는 그의 연구 지평이 사회과학에서 인문학의 세계로 확대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전환은 먼저 기존 지역연구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지역연구방법은 다른 학문영역과 마찬가지로

지로 미국의 학문방법론을 답습하고 있었다. 미국의 학문방법론은 분과학문적 전문성을 강조한다. 경제학은 경제학만, 정치학은 정치학만,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만 주목한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학문경향은 대체로 분과학문 중심적이고 뿌리 깊은 학과제국주의의 벽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판단력이 요구되는 지역연구가 발붙일 틈이 별로 없다”(Rhee 2002, 291).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지역연구분야에만 해당되지 않고 학문 전 분야에 만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미국식 지역연구방법보다는 유럽식, 특히 프랑스식 지역연구방식을 선호한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의 학풍이 나은 점이 있다면 사회과학 전반에도 역사학이나 인문학적 전통이 스며들어 어떤 주제를 파악할 때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또 종합적으로 상을 그리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Rhee 2002, 291)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포디즘식 논문생산보다는 장인의 수공업적 기예를 강조하는 프랑스적 분위기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역연구 모형”(Rhee 2002, 291)이라고 제안한다.

이와 함께 그는 지역학의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점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요구하였다. 하나는 부실한 학부교육의 개선을 지적하였고 다른 하나는 빈곤한 자료문화의 변화였다. 현재 “국내의 지역학이 대학원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학부교육은 너무 부실하고 너무 빈곤하다”(Rhee 2002, 292)고 지적하였다. 그는 “대학원생들이 스펙 쌓기의 결과로 어학은 잘하나 지역에 대한 기초지식이 전무하며 경쟁력 있는 대학원 교육은 튼튼한 학부교육에서 가능함”(Rhee 2002, 292)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 자료문화의 빈곤과 관련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연구 자료구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연구전문도서관의 설립(Rhee 2002, 293)을 제안하였다. 자료에 대한 무관심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어느 정부아래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을 한국학계의 한계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성형이 10년 전에 제기한 이 두 가지 문제는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HK연구프로젝트사업과 전문 학문분야별 자료실 지원 프로젝트사업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학 분야의 전문도서관은 설립되지 않고 있다.

이 시기 이성형의 대표적인 저서는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2001),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2003),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민족주의』(2009a) 등이다.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2001)는 여행기이다. 이 여행기는 그가 2000-2001년 라틴아메리카에서 체류하며 방문한 쿠바·페루·칠레·멕시코에 대한 문화 기행 기록으로, 구미의 역사와 문화에 편중된 우리의 서구중심주의적인 시각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여행기라는 장르를 통해서 그는 다음 네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 하였다.

첫째, 이성형은 “정형화된 동양의 이미지인 오리엔탈리즘에 오염된 머릿속의 지식들을 정리하려 하였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우리 지식인 세계에서 라틴아메리카 관련 지식에만은 교통순경 노릇을 하고 싶었다”(Rhee 2001, 4).

둘째, 이성형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우리들의 얼굴 모습을 가늠하고 싶었다. 여행기는 다른 문화를 살펴보는 망원경 역할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변별해 내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여행기는 신변잡기나 인상기를 넘어서야 한다”(Rhee 2001, 5)고 강조하였다.

셋째, 이성형은 미국화를 세계화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세계화는 장사꾼들이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뒤섞임으로 이루어진 잡종화(hybridization)이며, 이 잡종화의 역사는 최소 오백년 이상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Rhee 2001, 5)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지도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에 고착된 우리의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에게 풍요로운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번 더듬어보게 하는데 일조하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성형은 “지독한 사대주의의 물결에 사로잡힌 이들의 머릿속에 기형적으로 그려진 세계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게 되길 기대하였다”(Rhee 2001, 6).

이 여행기에서 이성형은 세계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뿐만 아니라 해박한 견문을 보여준다. 멕시코 남부 카리브 해에 있는 마야문명의 해안 무역도시 툴룸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 에게 해의 바닷가에 있는 신전도시를 상상하는 것은 참으로 감탄을 자아나게 한다(Rhee 2001, 276). 또 칠레의 독일이민사에 대한 조사는 칠레가 지난 70년대에 겪은 독재의 기원을 이해하게 하였다(Rhee 2001, 172-173).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2003)은 라틴아메리카 음식문화에 대한 산문집이면서 동시에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2001)에서 다룬 가벼운 주제를 심화시킨 역사서이다. 이성형은 이 책의 의미를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Rhee 2003, 309-311).

첫째, 이성형에 의하면 “역사는 다양한 시선으로 읽힐 수 있다. 역사에서 하나의 해석을 강요하는 어떤 특권적인 투시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흑인의 시각에서 보면 설탕의 역사는 노예제라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기나긴 시련의 역사이다. 그러나 유럽인의 시각에서 보면 달콤하고 매혹적인 미각자본주의의 한 계기일 뿐이다. 설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에 설탕이야기도 다르게 서술될 수밖에 없다. 승자가 쓴 역사서는 자신에 유리한 의제만을 가지고 서술한다. 유럽, 백인, 남성의 시각으로 쓰인 역사서는 자연스레 제3세계, 유색인, 여성, 원주민을 타자화 시키거나 왜곡시킨다. 심지어 그들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기도 한다”(Rhee 2003, 309). 이성형은 “이러한 유럽중심주의적 왜곡에서 벗어나 좀 더 실체에 가까운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선을 확보하고, 이들을 비교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Rhee 2003, 309)고 강조한다.

둘째, 이성형에 의하면 “유럽이 세계사의 시작과 종착역이 된다는 유럽중심주의는 오늘날 사회과학과 인문학 전 영역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에서 유럽도 하나의 지역이고 지방일 뿐이다. 유럽은 결코 알파이자 오메가인 특권적인 지리적 공간이 아니다. 유럽중심주의는 르네상스시대 이래 역사가, 지도제작자, 언어학자, 철학자, 문인 등이 만들어낸 발명품으로 지난 400-50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이런 유럽중심주의적 실천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개괄하고 있다. 공정한 세계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유럽중심주의를 철저히 해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Rhee 2003, 309)고 지적한다.

셋째, 이성형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를 주목한다. 안드레 군더 프랑크가 『리오리엔트』(Frank 1998; 2003)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성형은 그동안 유럽중심주의 역사학에서 과소평가되어 왔던 아시아, 특히 중국과 그 주변의 역사적 이상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성형은 “명나라 때의 항해왕인 정화의 원정 이야기에서 중국의 해양진출을 이야기했고, 은과 설탕의 이야기에서 아시아가 결코 유럽중심의 세계체제에 수동적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Rhee 2003, 310).

넷째, 이성형은 “우리에게 낯선 무역과 물산의 역사를 다루고자 했다. 세계사란 인간과 물건이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역사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사는 인간과 상품이 세계화되는 역사이기도 하다. 상품들이 교환되는 거대한 네트워크는 이미 16세기에 국지적 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발전했다. 400년 전 동남아의 허브 항구인 마닐라는 아메리카의 아카폴코와 연계되었고, 아시아는 인도양을 통해서 유럽에 긴밀하게 연계되었다”(Rhee 2003, 310).

다섯째, 이성형에 의하면 “설탕과 커피는 미각자본주의의 총아이지만, 노예제와 식민주의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유럽의 역사서술은 노예제 해방의 역사를 유럽내부의 자각이나 투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노예나 식민지 인구 스스로에 의한 노력은 과소평가한다. 역사는 발명되기도 하지만, 아이티의 사례처럼 때때로 지워지기도 한다”(Rhee 2003, 310-311).

여섯째, 이성형에 의하면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과 아시아 농민들에겐 구황 작물로 유명한 옥수수와 감자를 전파한 원조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세계사에 기여한 부분을 자주 잊는다.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에 금과 은을 넘쳐흐를 정도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발전시킨 농업문명의 정수인 옥수수와 감자를 전함으로써 서구의 제2차 농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보조식량의 공급이 없었다면 유럽의 산업혁명은 한참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이다”(Rhee 2003, 312). 이성형은 이 책에서 이 귀한 옥수수와 감자가 어떻게 구미와 중국의 농업 역사를 바꾸었는지 살펴보면서, 아울러 이 식량들이 구미와 중국에 남긴 족적을 하나씩 분석하였다. 그는 이 두 책에서 가볍게 다룬 3가지(벽화, 음악, 축구) 주제를 다시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이것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민족주의』(Rhee 2009a)로 출간되었다.

이성형은 국내 주요 일간지에 연재된 세계사 이야기 50개를 통해 우리가 평소 간과해온 타자들(아시아인, 흑인, 원주민 등)의 위상을 복원시키고,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유럽중심주의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이한 우리로서는 이러한 작업이 지리적으로 공정한 세계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Rhee 2003, 311)고 강조한다. 그는 “무역대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달리 우리 학계가 여전히 한반도와 땅의 역사에만 집착하는 편집중에 사로잡혀 있음”(Rhee 2003, 311)을 강력히 비판한다.

나오는 말 - 미완의 라틴아메리카 연구

이성형의 라틴아메리카 연구사의 네 번째 단계는 그가 마지막으로 몸담은 서울대학교의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의 HK연구교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동시에 그가 대학 밖에서 인문학습원의 중남미학교(<http://www.huschool.com>)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연구를 대중화하던 시기였다. 그는 전문가의 길과 대중적 교육자의 길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이 시절은 안타깝게도 병마가 다가온 시기이기도 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 그는 HK연구프로젝트 수행과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이 시기 이성형은 몇 권의 번역서와 편지를 출간하였다. 그는 훌륭한 저서의 출간도 중요하지만 좋은 저서를 번역하는 일과 연구결과의 대중적 확산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성형은 대학 밖에서 중요한 실험을 하였다. 그것은 인문학습원의 중남미학교를 통한 지역연구의 대중화 실험이다. 이 인문학습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대중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였다. 2008년 가을에 개교한 중남미학교의 개교사에서 그는 “라틴아메리카 역사, 지리, 문화를 통해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처해있는 입지를 살펴보고 현실을 이해한다.”고 개교취지를 설명하였다(<http://www.huschool.com>). 사실 지역학은 오랫동안 대학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 지역학연구는 대학과 연구소 내의 전문가와 학생들에게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설립된 인문학습원의 강좌에 참여함으로써 지역학의 대중화 실험에 기여하였다. 이 중남미 학교를 통해 그는 대중들에게 ‘당신은 우리의 라틴아메리카 선생님’으로서 각인 되었다.

또 다른 실험은 지역연구의 실용적 접근이다. 원래 서구에서 지역학은 제국주의 팽창과 식민지 개척을 보조하는 정책학문의 성격이 강하였다(Kim 1998, 11-17). 가령 인류학자와 선교사들을 침략대상지역으로 먼저 파견하여 침략할 기본 자원들을 조사하게 하였다.⁴ 따라서 제3세계에서 지역연구에 대한 기억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연구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지역연구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역연구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함

4 인류학과 지역학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현황과 특징에 대해서는 최협 편(1997)을 참고할 수 있다.

을 강조하였다(Rhee 2002, 309). 한국이 처한 인구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해외로의 적극적인 이주정책을 제안하였다 (Rhee 2002, 266). 이러한 이유로 그는 외교통상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용역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성형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연구의 주요한 발전과정을 그의 사회전기와 병행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혈기왕성한 젊은 정치학자에서 꼼꼼한 지역학 전문가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풍부한 인문학의 감성을 지닌 지역학 전문가로 변화해 왔다. 그는 지역학의 방법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그는 해외유학을 하지 않고도 탁월한 지역학 전문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서구중심의 시각으로 지역학을 연구해 왔지만 그는 비서구 세계의 관점에서 지역학의 문제를 조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신자유주의 문제를 분석하고 극복하기 위해 20여 년간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가 시작한 이 길은 미완의 길이 되었다. 그는 어떠한 길을 만들기를 원했을까? 짧지 않은 삶을 통해 그는 우리에게 어떤 지역전문가의 상을 보여 주려 하였을까? 지난해 그의 부고 소식이 전해진 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적합한 평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유학을 하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가장 잘 훈련된 최초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전문가’.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 대한 사랑을 남겼다.

참고문헌

First Resource

- Rhee, Sung-Hyong(1990), *Latin America Jabonjueni Nongengsa*(The History of Debate on Capitalism in Latin America), Seoul: Kkachi.
- _____ (1998), *IMF Sidaeeni Mexico*(Mexico of IMF' Time),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 _____ (1999a), *Shinjayujueni Bitkwa Grimja*(The Light and Shadow of Neoliberalism), Seoul: Hangilsa.
- _____ (ed.), (1999b), *Latin Americaeni Yeoksawa Sasang*(History and Thoughts of Latin America), Seoul: Kkachi.
- _____ (2001), *Baerentago Havanareul Teonalltae*(Cuando sali de la habana, -Cultural Travels of Latin America), Seoul: Changbi
- _____ (2002), *Latin America, Yeongwonban Wigieuni Jeongchikyeongjebak*(Latin America: Political Economy of Permanent Crisis), Seoul: Yeoksa Bipyong.
- _____ (2003), *Columbusga Seojokenro Gan Kkadakenn?*(Why Columbus Went to Western Direction?), Seoul: Kkachi.
- _____ (2009a), *Latin Americaeni Munhwajeok Minjokjueni - Byeokbwa, Kukmineumak, Chukgyeul Tonghae Bon Jeongbeseongeni Jeongchi*(Cultural Nationalism of Latin America - The Politics of Identity through Mural Painting, National Music and Football), Seoul: Gil.
- _____ (2009b), *Daebongsu, Latin America-Sinjayujueni 20nyeoneni Kyeongbeom*(The Great Floods, 20 Years Experience of Latin American Neoliberalism), Seoul: Grinbee.

Second Resource

- Choi, Hyup(1997), *Iyubakkwaja Jiyek Yeongu*(Anthropology and Area Studies), Seoul: Nanam.
- Frank, A.G.(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ee-Jae Lee(trans.), *ReORIENT*, 2003, Seoul: Asan.
- Hankyoreh 21(2012), No. 924. pp. 44-48.
- Kim, Kyeong-Il(ed.)(1998), *Jiyekyeongjueni Yeoksawa Iron*(History and Theory of Area Studies), Seoul: Munwha Gwahaksa.
- Lee, Sang-Sup and Tae-Hwan Kwon(1998), *Hankukeni Jiyek Yeongu*(Area Studies of Korea),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 Suh, Sung-Chul(2012), *Hankyoreh*, August 6, p. 23.
www.huschool.com